

우리 나라 원자력계의 원로 金鍾珠씨가 11월 24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故人是 52년 한전에 입사, 원자력담당 이사, 부사장, 고문을 역임했다. 80년에 한전을 떠난 후 한국중공업(주) 부사장을 거쳐 82년부터는 (주)무디코리아의 회장으로 일해 왔다. 향년 72세.

故 金鍾珠兄을 追慕한다

마 경 석

한국엔지니어즈클럽 명예회장

「發起人이신 金鍾珠 회장께서 오늘 새벽에 별세 하셨습니다.」라는 한국엔지니어즈클럽 사무국장의 전화에 깜짝 놀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하고 나도 몰래 소리를 질렀다. 우리는 현대산업사의 큰 별 하나를 잃은 것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면 올 것이 오고 만 것이라고 생각한다. 100명 중에 한 사람만이 맞이할 수 있다는 金婚式을 작년에, 「人生七十古來稀」라는 古稀도 3년 전에 지냈고, 슬하에 3남3녀가 있어 모두 훌륭히 장성하여 누구 부럽지 않은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늙은 손자손녀가 열다섯이나 된다. 마누라 자랑하면 팔뿐이라고도 하지만, 金兄은 평소에도 아들 딸들을 훌륭하게 잘 키운 것은 내자의 따뜻한 사랑과 가르침의 결과라고 서슴치 않고 자랑하곤 했다. 50년을 함께한 평생의 동반자였던 부인의 살뜰한 간호를 받으면서 운명하였으니, 편안히 눈을 감았으리라 믿는다.

金鍾珠 兄은 1921년 독립운동 후원자인 金永珠 씨의 3남으로 慶南 梁山에서 출생하여 보통교육을 釜山에서, 고등교육은 日本에 있는 제7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43년에 일본인들에게도 선망의 대상이었던 최고 명문인 東京帝國大學에 입학하였다. 불

행중 다행으로 그해 가을에 폐결핵으로 휴학하는 바람에 日本軍 學徒志願兵 徵集을 슬기롭게 모면하였다.

본인은 金兄과는 판이하게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다. 한반도 최동북단 白頭山 기슭의 두메산골에서 가난한 소작농의 9남매중 막둥이로 태어나 11살까지 농사짓다가 우연한 기회에 보통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이 내 인생을 반전시키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는 咸鏡道 쌍놈이다. 반면에 金兄은 慶尙道 양반 출신으로 유복하게 자랐다. 본인의 성격이 저돌적인 데 반해 金兄은 온순하였다.

大學 3년間の 生活

해방 직후, 金兄과 본인은 京城大學 理工學部에 같이 편입하였다.

한반도에서는 유일한 科學技術의 殿堂이었던 新孔德里 이공학부교사를 美軍이 접수, 美軍病院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이공학부는 교사도 없이 東崇洞 법문학부 교사 한동을 빌려쓰는 비참한 형편이었다. 校舍奪還委員會를 구성하여, 관계요소에 진정하였고 본인도 金兄과 같이 여기저기 뛰어 다녔

으나 허사였다.

47년 9월에 난데없이 국립서울대학안이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京城大學, 京醫專, 工專, 鑛專, 法專, 商專, 齒專, 藥專, 師範과 水原 農林의 9개 관립전문학교를 통폐합하여 국립서울대학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 발단으로는 의학부에 좌익학생이 많고, 경의전에 우익이 많아서 합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확대되어 서울대학안이 생겼다는 것이었다.

日本은 패전국이고 우리와 같이 美軍政下에 있는데도 그전 학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의 아무런 의견 수렴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美國式 學制를 채택한다는 것은 비민주적이라고 하여 京城大學 3개 學部와 9개 專門學校들도 일제히 반대하였고 급기야 反對鬪爭委員會가 결성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기까지에 이르렀다. 본인은 金兄과 같이 鬪爭委員會에서 활동하다가 마침내 함께 제명처분까지 당하게 되었다.

金兄과 본인은 이공학부 교사 탈환과 국립서울대학안에 반대하는 운동을 같이한 鬪士였고, 同志였다. 48년에 학교를 졸업한 뒤에 金兄은 모교에서 2년간 교편을 잡은 후, 한국전력에 입사하였고, 본인은 직접 화공현장에 투신하였다.

金兄은 에너지 자원이 빈곤한 우리 나라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원자력발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깨닫고 우리 나라 원자력의 개척자로서 Westinghouse의 PWR을 선택하였다. 이 선택은 우리나라 전력계 제일 선배로서의 많은 업적 가운데 으뜸가는 金兄의 업적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難兄難弟의 사이

1976년에 일본의 원자력산업 시찰을 같이 가게 되었다. 낮에는 金兄이 단장이 되고, 밤에는 본인이 단장을 하였다. 지방 기계제작공장, 원자력발전소, 원자력연구소 등을 꼭 짜여진 Schedule에 따라

강행군하다가 토요일에 東京에 도착하여 銀座의 第一호텔에 여장을 풀고 20여 단원이 한국 음식점으로 가서 푸짐히 먹고 마시고 한 후 호텔로 돌아왔는데, 또 다시 의기투합하여 金兄과 들어서 2차를 갔다. 다음날 아침 7시 반에 호텔의 일식당에 집합하게 되어 있었는데 金兄만이 나타나지 않아 여기저기 찾았으나 없어서 본인만이 알고 있던 간밤 2차에서의 회안했던 일을 털어 놓을 수 밖에 없었다. 金兄의 행방불명이 필경 金大中씨 납치사건의 재발이 아닌가 하고 20여 단원이 걱정하였는데 10시가 지나서야 나타나 그날밤이 대단히 즐거웠다는 야사를 토로하던 金兄!

5~6년전 金兄의 3남이 明洞聖堂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장에서 본인이 「이제 몇놈이나 더 낳았소?」하고 물었더니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손자, 손녀들이」하고 재치있게 대답하던 金兄!

3~4년전 金兄의 사위가 과학기술원 화학과 조교수라는 말이 나와 본인은 농칠세라 「내 사위는 정교수요.」라고 콧대를 높렸더니 대뜸 「몇째 사위요?」라고 묻기에 무심코 「둘째 사위요」라고 하였더니, 「나는 셋째 사위요」라고 반격하던 金兄!

동갑이어서, 서로 자기가 형이라고 우겨댔고 주민등록증까지 들춰가며 따지고는 했으나 가짜다, 진짜다하며 서로 양보하지 않았던 金兄, 먼저 이성을 떠났으니 저승에서 만나면 꼭 형이라고 불러줄 것이고 꼭듯이 모시겠소.

한국엔지니어즈클럽 (KEC)창립

60년대 2대 국영기업은 韓國電力과 忠州肥料였다. 그당시 국영기업의 사장, 부사장 등 중역은 대부분이 퇴역장성 또는 퇴역장관들이 차지하고 우리 기술자는 기술이사, 공장장 등이 고작이었는데, 이번이 생겼다. 바로 기술자인 金兄이 72년에 韓國電力 副社長으로 승진한 일이었다. 기술자가 국내 최대 기업인 韓國電力의 富社長이 되었다는 사실은 과학기술계, 산업계의 대단히 큰 희소식이었다.

본인이 뛰어가서 축하를 드리고 「큰형님」으로 모시겠다고 자청하였다.

그리고 우리 엔지니어들도 대동단결 힘을 합쳐서 대학시절에 美軍政하고 투쟁했듯이 朴正熙 정권에 정면투쟁은 불가능하였지만 기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 것을 합의하고, 산업계 중역과 부장급을 규합하기로 하여 金兄이 뒤에 서고 본인이 앞장서서 산업계 엔지니어들을 설득하기 시작하였다. 軍事獨裁 정권하에서 이러한 조직을 비밀리에 만들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였으나 화공, 기계,

토목, 전기분과 등 11개 분과의 산업계 중진 엔지니어 300명을 모아서 74년 10월 2일에 한국엔지니어즈클럽을 조용히 출범시켜 본인이 회장이 되고 金兄이 전기담당 이사가 되었다.

그리하여 軍將星, 退役長次官이 독식하던 산업계 중역에 엔지니어를 진출시키고 엔지니어의 사회지위 향상에 같이 노력하였고, 엔지니어들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왔다. 金兄이 개척한 韓電 副社長 자리에는 그후 辛基祚, 成樂正, 金善昶, 文熙晟, 李宗勳, 張基玉, 李東昊, 金永文 등 KEC 회원이 승진되었고 또한 계승될 것이니 저승에서 지켜보시

金鍾珠 先輩님의 靈前에

김 선 창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오늘 홀연히 가신 金鍾珠 先輩님의 靈前에 향을 쬐고 그 영전을 대하는 순간, 나는 가슴에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감회를 억누를 수 없어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엎드려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나 한사람만의 감회가 아니라 金 先輩님을 아는 분이면 누구나 함께 하는 슬픔이요 애도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몇달 전까지만 해도 古稀를 넘기고 두해를 맞은 나이임에도 한점 흐트러짐이 없는 정정한 모습으로 주식회사 무디코리아를 경영하면서 우리 후배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金 회장님의 이러한 모습은 언제나 우리의 귀감으로서 후배들에게 용기와 분발을 일깨워 주기에 족했습니다.

길으로는 매우 차갑고 엄격해 보이지만 그러한 냉철함과 이성이 있었기에 韓國電氣界의 元老로서, 原子力界의 선구자로서 곳곳이 正道를 걸어올 수 있었다고 믿으면서 그 음덕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金 先輩님은 일본동경대학에 입학한 수재로서 해방 후에는 서울대로 옮겨 전기공학을 전공하시고 조선전업에 입사하면서부터 電氣人으로서의 외길을 걸어 왔습니다.

1958년 급전과장시절 유네스코 장학금으로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영국 하웰연구소의 원자력학과와 콜더홀 원자력발전소에서 기술연수를 받고 돌아와 이 땅에 「제3의 불」로 일컬어지는 원자력의